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10호 [부록 제24623호] 주제 103(2014)년 7월 29일 (화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우리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시며 해외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 삼가 드립니다

우리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시며 해외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
오늘 우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애국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산악같이 떨쳐나선 조국인민들의 장엄한 투쟁으로 온 나라에 약동하는 기상이 차 넘치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조국해방전쟁승리 61돐을 승리의 대축전으로 맞이하고있습니다.
이 뜻깊은 날을 맞이하는 재중조선인총련합회와 전체 재중조선인들은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전승업적을 대를 이어 빛내어나가시는 우리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시며 해외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 열화같은 충정의 한마음을 담아 삼가 최대의 영광과 가장 소중한 경의를 드립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군대와 인민이 피로써 이룩한 조국해방전쟁의 빛나는 승리는 세계반동들의 원형인 미제국주의를 거꾸러뜨리고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생사존망의 위기에서 구원한 민족자주사변으로서 그 어떤 침략자도 자기 자신의 자취를 수호하기 위하여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붙어 사생결단의 의지로 싸우는 군대와 인민을 당할 수 이 세상에 없다는 력사의 진리를 뚜렷이 새겨주었습니다.
조국해방전쟁을 위대한 승리로 이끄시어 조국과

인민, 시대와 역사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어버이수령님은 반체제자위업승리의 상징으로 만민의 심장속에 영생하고있으며 수령님의 반미전승업적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년대와 년대를 이어 반미대결전에서 거듭되는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게 한 필승의 보검으로, 고귀한 혁명적유산으로 되었습니다.
어버이수령님의 반미전승업적을 그대로 이어받으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미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피괴들의 전쟁책동으로 말미암아 더욱 엄혹해지는 정세를 통찰하시고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독창적인 선군정치방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하시어 우리 혁명의 단계군사전선을 철용성같이 다지고 강력한 자위적전쟁억제력을 마련하시으로써 우리 인민의 반미반제투쟁을 새로운 승리에로 드림없이 이끌어주시었습니다.
조국해방전쟁승리 61돐을 뜻깊게 기념하는 우리 전체 재중조선인들은 주체적군사사상과 전법, 탁월한 령군술로 반미성전을 승리로 이끄신 위대한 대원수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기며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선군혁명명도따라 1950년대 전승의 위훈과 전통을 굳건히 이어 반미반제대전에서 최후의 승리를 이룩하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해나갈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가다듬고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필승의 선군명도가 있기에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 반미반제투쟁의 만년보검으로 빛나고있으며 우리 인민들은 그 보검으로 어떤 침략자도 단애에 격멸할것이며 우리 식 사회주의는 영원히 승승장구해나갈것입니다.
우리는 투철한 민족자주의 립장을 가지고 반미반제투쟁의 불길은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 미제와 남조선호전파들의 날로 로골화되는 북침전쟁책동을 저지파탄시키며 제2의 6.15시대를 기어 안아오려는 일념으로 반동일세력을 력사의 시궁창에 매장하기 위한 대중적운동을 더욱 과감히 벌려나갑니다.
우리 재중동포들의 간절한 소원은 오직 하나 지금 이 시각에도 조국과 민족의 찬란한 미래를 위한 선군명도의 길을 불철주야로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건강과 안녕입니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는 전체 재중조선인들의 다함없는 호모와 충정의 한마음을 담아 우리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시며 재중조선인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 부디 안녕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는니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주제 103(2014)년 7월 27일 심양

7.27전승은 김일성장군님의 불멸의 력사적 공적 남조선 각계가 높이 칭송

조국해방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목소리가 남조선인민들 속에서 높이 울려나오고있다.
전체 군대와 인민을 원수적격의 성전에 한사칼같이 떨쳐나서게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령도에 대해 한 인터넷언론은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전쟁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는것은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굳게 믿고 떨쳐나선 군인들과 민중의 사상의식이라는 점을 강조하시었다.
전쟁개시 다음날인 6월 26일 김일성주석께서는 《모든 힘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라는 방송연설을 하시어 전체 민중에게 승리의 심신을 안겨주시었다.
또한 1950년 10월 2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 하신 결론《인민군대에 조선로동당 단체를 조직해야 대하여》를 발표하시어 인민군대에 당단체를 조직하도록 이끄시었다.
이 조치로 군인들이 정치적사적으로 튼튼히 무장할수 있는 확고

한 담보가 마련되었다.
한 실용공작 로동자는 김일성장군님의 명령을 받은 인민군대는 이르는 곳마다에서 미국놈들을 멸살시켰는데 대전에서는 미 24사단이 독안에 뒤 쥐모양이 되었고 사단장은 포로신세가 되었다고 말하였다.
각곳에 펼쳐진 《민심의 광장》에서도 현대포위전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한 대전해방전투, 세계전쟁사의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강도전과 적국적인 진지방어전, 비행기사냥군조운동과 땅크사냥군조운동, 적들의 불의적인 침공에 대한 즉시적인 반공격과 연속적인 타격전 등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해방전쟁시 창조하신 독창적인 군사전략과 전법, 업적들에 경탄을 표시하는 목소리들이 끊없이 울려나왔다.
서울대학교의 한 교수는 조선전쟁에서의 이복의 승리는 김일성장군님께서 내놓으신 군사사상의 승리, 군사전략의 승리, 군사로선의 승리이고 장군님의 두리에 일심동체가 된 인민군과 민중의 무비의 영웅들의 승리라고 주장하였다.
불세출의 위인이신 위대한 수령님

위대한 전승의 력사를 강성국가건설성과로 빛내어나가자

부강조국건설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 만대에 전해가리 백송혁명사적지를 지난 45년동안 연 434만 3천여명의 인민군인들과 각계각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 1만여명의 해외동포들과 외국인들 참관

승리의 크나큰 공지와 환희속에 경승을 맞이한 가운데 부강조국건설에 쌓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만대에 길이 전하는 백송혁명사적지에 많은 참관자들이 계속 찾아오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이곳 사적지에서 혁명사적교양사업을 시작한 때로부터 지난 45년동안 434만 3천여명의 인민군인들과 각계각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 330여명의 해외동포들과 7280여명의 외국인들이 사적지를 찾았다.
참관자들은 사적지와 사적관에 보관된 사적물품과 유물들을 깊은 감명속에 돌아보면서 가멸적절했던 조국해방전쟁시기 승리할 조국의 패일을 내다보고 부강조국건설의 웅대한 설계를 펼쳐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기리는 위대한 위인상을 가슴뜨겁게 새기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참으로 김일성동지는 력사에 있어본적이 없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며 만민이 우러르는 절세의 위인이시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의 운명을 판가름하는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주체 41(1952)년 4월 12일 백송리에 있던 김일성종합대학을 찾으신다.
이날 밤늦도록 공학원자들과 담화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도 이틀남지 《조국해방전쟁의 전법과 종합대학의 교과》라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도 연설에서 전시 대학사업의 발전방향과 방

도를 환히 밝혀주시고 전후복구건설과 앞으로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는 데서 나오는 과업에 이르러가기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백송혁명사적관을 찾은 참관자들은 사적지에 어머없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어버이를 모시고 살며 투쟁해왔는가를 더욱 가슴뜨겁게 절감하고있다.
백송땅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도 조국해방전쟁은 반드시 우리 인민의 승리로 끝나게 된다 하시면서 조국해방전쟁을 이끄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어버이를 모시고 살며 투쟁해왔는가를 더욱 가슴뜨겁게 절감하고있다.
백송땅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도 조국해방전쟁은 반드시 우리 인민의 승리로 끝나게 된다 하시면서 조국해방전쟁을 이끄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어버이를 모시고 살며 투쟁해왔는가를 더욱 가슴뜨겁게 절감하고있다.
백송땅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도 조국해방전쟁은 반드시 우리 인민의 승리로 끝나게 된다 하시면서 조국해방전쟁을 이끄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어버이를 모시고 살며 투쟁해왔는가를 더욱 가슴뜨겁게 절감하고있다.

고 사적지를 더 잘 꾸러 학생들과 근로자들의 훌륭한 교양거점으로 되도록 정력적으로 령도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도 전쟁시기 김일성종합대학 교직원, 학생들이 야외에 어버이수령님의 식고상을 정중히 모시고 학습전투를 벌였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사적지에 수령님의 동상을 철도의 수준에서 높이 모시도록 하시었다. 그리고 선군혁명명도를 이어가시는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백송혁명사적관 사업을 로해하시고 강도 사들의 이동강의용소형버스와 종합적인 유휴설비들, 텔레비전수상기와 사랑의 악기들을 보내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사적관을 찾은 외국의 벗들도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비범한 예지와 령도의 위대성에 대하여 경탄을 금치 못하며 투쟁을 알리거나 백송혁명사적관을 꼭 참관하여야 한다고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백송혁명사적관 강사들은 혁명사적관을 찾은 참관자들에게 대한 해설강의에 그치지 않고 당정책대로 할수있도록 배낭을 메고 들뜬 사회주의건설장들에 나가 지금까지 연 164만 6470여명대 대상으로 이동강의를 진행하여 백송땅에 깃들여있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깊이 새겨주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념민이 땅우에 찬란한 현실로 꽃피워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들 높이 모시어 백송혁명사적지는 혁명적공교양의 거점으로 더욱 훌륭히 꾸러지고 백두산절세인민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세세년년 깊이 빛나고있다.
특파기자 리 혁철

전진선봉대에 김정일이 김정일이 김정일이

위대한 령도자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미제국주의의 (강대성)에 대한 전행력사에서 처음으로 미제에게 참패를 안긴 전승업적으로 하여 우리 공화국은 영웅의 나라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영웅적군대, 영웅적인 인민으로 세계에 이름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항쟁남도의 각급 당조직들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높이 체득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힘써 진행하고있다.
백송혁명사적관을 비롯한 당위원회, 기업소들과 탄광, 광산, 건설장들에 나가 당화, 강연회 등을 통하여 백송혁명사적관의 강철의 령도자이신 어버이수령님께서 불멸의 혁명업적을 높이 체득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힘써 진행하고있다.
당위원회 전진선봉대에서는 도급기초당과 중요공장, 기업소들, 시, 군당조직들에서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높이 체득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전진선봉대에서는 각급 당조직들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높이 체득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미제국주의의 (강대성)에 대한 전행력사에서 처음으로 미제에게 참패를 안긴 전승업적으로 하여 우리 공화국은 영웅의 나라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영웅적군대, 영웅적인 인민으로 세계에 이름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항쟁남도의 각급 당조직들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높이 체득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힘써 진행하고있다.
백송혁명사적관을 비롯한 당위원회, 기업소들과 탄광, 광산, 건설장들에 나가 당화, 강연회 등을 통하여 백송혁명사적관의 강철의 령도자이신 어버이수령님께서 불멸의 혁명업적을 높이 체득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힘써 진행하고있다.
당위원회 전진선봉대에서는 도급기초당과 중요공장, 기업소들, 시, 군당조직들에서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높이 체득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3호발전소건설 빠른 속도로 진척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에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이 당에서 똘똘히 말거준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과 북부철길개건보수공사를 비롯한 여러 중요건설대상들에 달려나가 귀중한 청춘시절을 아낌없이 바치고있는데 그들이 정말 대단하게 자랑합니다.》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 일꾼들과 청년동맹원들이 3호발전소건설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나가고있다.
현장연합지휘부에서는 올해에 1호발전소 연체양기와 2호발전소 물길공사들을 다그쳐 끝내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내미는 동시에 3호발전소건설에 역량을 집중하고있다.
3호발전소건설은 수만㎡의 토광과 암반을 처리하고 1만여㎡의 콘크리트치를 해야 하는

방대한 공사이다.
현장연합지휘부일꾼들은 대담하고 용이 큰 작전을 펼치고 경제조작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고있다. 특히 이들은 청년동맹원들의 정진력을 최대로 발휘시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모든 일에 확고히 앞세워나가고있다.
언제공사와 물길공사, 조압수조공사 등 대상건설을 맡은 각 리단에서는 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벌리며 불꽃튀는 전투를 벌려나가고있다.
언제공사에 진입한 황해북도려단 전투원들은 가배수로굴착공사를 짧은 기간에 끝내고 콘크리트 타입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는것과 함께 방수로굴착공사를 위한 트레크 공작기를 들이대고있다.
물길공사에 맡은 량강도려단의 청년동맹원들은 암속기를 비롯한 설비들을 현장에 자동전개하고 필요한 수시㎡의 동발나무를

자재로 마련한데 기초하여 연속전공, 연속발파를 들이대며 굴진속도를 계속 높여나가고있다.
드세한 공작진을 벌려 조압수조기초굴착공사를 앞당겨 끝낸 평안남도려단 청년동맹원들은 기세를 높추지 않고 위수탐기초굴착공사에서 련일 혁신을 창조해나가고있다.
성, 중앙기관대대, 남포시대의 청년동맹원들끼리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미풍을 높이 발휘하며 맡은 대상공사들을 불이 번쩍 나게 다그치고있다.
현장연합지휘부일꾼들의 빈틈없는 작전과 지휘, 동맹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해 콘베어와 선별, 세척공정이 갖추어진 선별장이 훌륭히 꾸러져 만가동의 동을높이 여러 건설공사장들에 필요한 모래와 자갈을 원만히 보장해주고있다.
특파기자 전철주



새로운 조속속도창조의 열풍 휘몰아치는 만경대학생소년군청년발전소건설현장 본사기자 리명남 찍음

